

지선 앞두고 지방 中소정책 호소... 리쇼어링 범위 확대 촉구

중기중앙회, 지방시대위와 소통회의
유턴기업 감소세... 제도 손질 요구
해외생산 국내 이전 유인강화 주문
김 회장 “산단 업종규제 내거티브 전환”
김 위원장 “지방 성장주도 지원 최선”

중소기업계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중소기업 정책 현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기업 인정 범위 확대,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 거점대·폴리텍대·지역 기업간 협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조용환 5급3특정책국장 등과 함께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열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한욱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경남),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전남),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인천), 한영돈 선유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경기북부) 등 지방과 수도권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왼쪽 4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경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63.4%가 수도권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을 늘리기 위해 리쇼어링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유턴법’이라고도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2013년 제정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유턴기업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26개이던 유턴기업 숫자는 2022년 24개, 2023년 22개에서 지난 2024년에는 20개까지 줄었다.

이처럼 리쇼어링 기업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제도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해외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리쇼어링의 종류에는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중간재(재화·서비스)를 생산하다 청산하고 국내에 새로운 사업

장을 신설·증설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 ▲해외 사업장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다 이를 청산하고 국내 타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아웃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에 새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생산하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 타기업에 맡기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아웃소싱)가 있다.

이 4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에선 해외 투자도 회수하고 국내 신규투자도 이뤄지는 ‘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의 경

우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해외투자 회수나 국내 신규 투자 등 직접적 효과가 없는 리쇼어링 유형도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외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제조업 생산기반이 늘고 특히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해외서 중간재를 생산하던 기업이 자국내 다른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등도 리쇼어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단기적·분절적 지원에서 대규모·중장기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원(자금),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입(세제), 업종유지 요건 적용 제외(기업승계)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방 산업단지 슬럼화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 제한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로 바꾸면 산단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바이오·AI·딥테크 분야, 한일 혁신거점 협력 확대

노동성 중기부 1차관, 日 방문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지원”
산업·외교부와 대미 진출기업 간담회

정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일본 추가 진출 지원에 나섰다.

미국 진출기업에 대해서도 현지 입국 및 체류시 애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도 추가로 조성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동성 제1차관은 한·일 정상 서를 외교 기조에 따른 고위급 후속 방일 행사로 이날 일본 후지사와에 위치한 쇼난 아이파크(I-Park)와 도쿄에 있는 캠프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를 잇따라 시찰하

고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양국 추가 협력 체계 구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은 “한·일 스타트업 협력은 양국의 경제안보·과학기술을 포괄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바이오,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분야별 한·일 혁신거점 간 협력을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후지모토 토시오 쇼난 I-Park 최고경영자(CEO)와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조성 중인 ‘K-바이

오랩허브’와 쇼난 I-Park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쇼난 I-Park는 일본의 글로벌 제약사 다케다가 만든 개방형 혁신거점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진출해 일본 제약사, 글로벌 기업 등과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중기부와 쇼난 I-Park는 지난 2023년 11월 업무협약 체결했고 현재 충북 글로벌혁신특구 해외실증 지원으로 한국 벤처 10개사가 입주 중이다. 양측은 K-바이오랩허브 완공 전인 2028년 하반기까지는 기존 프로그램 위주로 협력을 진행하고 완공 후에는 상호 장비·입주공간 공유 등 협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노 차관은 “쇼난 I-Park는 한·일 바

이오 협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라며 “정부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동 R&D와 사업화로 연결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노 차관은 CIC 도쿄에서 팀 로우 CIC 대표와 서울 흥대 일대에 구축 중인 ‘K-스타트허브(K-StartHub)’와 CIC 간 협력을 의논했다.

CIC 도쿄에는 지난 2024년 5월 K-스타트업센터가 개소했고 현재 국내 스타트업 24개사가 입주해 사무공간, 현지 대기업·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등 사업 전반을 지원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사 현장개선 지원 진단·교육·컨설팅 제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대기업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대중기업협력재단은 해외 ESG 규제 강화와 공급망 실사 요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다.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ESG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은 실제 현장에서 ESG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영광군 지역 우수제품 발굴·전국 판로 확대

TV홈쇼핑 방송·모바일 앱 활용
방송편성·공동 프로모션 등 추진
기획·마케팅 스케일업 멘토링 제공

홈쇼핑이 전남 영광군의 지역 우수제품 판로 확대에 나선다.

홈쇼핑은 지난 24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영광군과 지역 우수제품 발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 영광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등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영광군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극



홈쇼핑은 전남 영광군과 농특산물 등 우수제품 발굴·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쇼핑

발굴하고 상품화 및 유통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홈쇼핑은 TV홈쇼핑 방송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영광군 우수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며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스케

일업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방송 편성, 모바일 기획전, 공동 프로모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매출 성과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김승호 기자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전국 단위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영광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사례로, 향후 지역 균형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과 모바일 플랫폼을 연계한 판매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확대를 돕겠다”면서 “체계적인 멘토링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건 매트리스 N32

내달 첫 ‘N32 데이’ 개최

전국 7개 매장서 럭키드로우 진행

비건 매트리스 N32가 오는 3월 2일 첫 ‘N32 데이’ 행사를 열고 전국에서 고객들을 만난다.

25일 시몬스에 따르면 N32 데이는 N32 플래그십 스토어인 N32 테라스와 N32 스튜디오 기흥점을 비롯해 ▲N32 현대백화점 판교점 ▲N32 신세계백화점 화점 센텀시티점 ▲N32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N32 아이파크몰 용산점 ▲N32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각각 진행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7개 스토어에서 오후 3시 2분 열리는 ‘럭키드로우’다. /김승호 기자